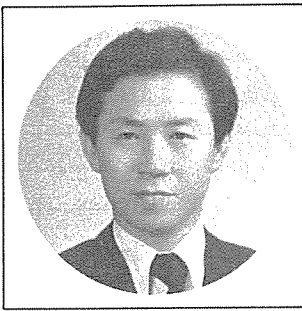


“93年 次期회의 스페인서 알기로”

—科學과 政治주제…東歐사회 變化실감



송 상 용
(한림대 교수)

열여덟번째 국제과학사회의는 처음으로 서독에서 열렸다. 나는 휴교 때문에 늦어진 1학기 성적을 허둥지둥 내고 8월1일 새벽 함부르크공항에 내렸다. 서울은 3북중이었는데 그곳은 초겨울 날씨였다. 작년에 한달 살았던 곳이라 낯설지 않아 좋았다. 오후 늦게 콩그레스 첸트룸(회의센터)을 찾아가니 많은 구면들이 서성대고 있었다. 회의때마다 오는 단골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한국에서는 겨우 여섯명이 갔다. 金相運교수(성신여대) 내외분, 金基協교수(계명대), 成映坤씨(서울대 강사)가 각각 다른 길로 도착했고 함부르크대학의 任敬淳씨가 현지에서 합류했다. 우리가 국제과학사회의에 처음 간 것은 1974년(제14회) 東京, 京都였다. 그때 나는 현지의 두 분과 함께 참석했다. 다음 1977년 에딘버러에는 나 혼자였다. 1981년 부쿠레슈티에는 넷이 가서 논문을 읽었다. 지난번 버클리회의(1985)에는 여덟명이 모여 기세를 올렸는데 이번에는 줄어든 것이다. 참가자 수가 그동안 늘어난 국력에

비례하지 않아 우울했다. 북한은 8년전 부쿠레슈티에 셋이 나타나더니 버클리에서 서독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첫날에만도 6대주 48 나라의 1,050명이 등록한 큰 회의였다. 악단까지 동원된 화려한 개회식이 저녁에 있었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과학과 정치」였는데 개회사를 한 조직위원장 스크리바교수(함부르크)와 프로그램위원장 크라프트교수(마르부르크)는 과학사 회의와 정치가 얼마나 관계가 깊었는가부터 얘기했다.

1929년 파리에서 시작한 국제과학사회의는 런던(1931)까지는 순조로웠는데 1934년 스페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세번째 회의가 내란 때문에 포르투갈의 코임브라, 포르토, 리스보아로 옮겨졌다. 프라하회의(1937)는 무사히 치렀으나 1940년 베를린회는 2차대전이 터져 무산되었다. 회의는 10년만인 1947년 로잔회의부터 정상화되었다.

결국 독일은 베를린을 놓친 다음 근 반세기 만에 회의를 주최하게 된 것이다. 4년전 버클리

에서 다음 회의장소로 함부르크와 뮌헨이 결정되자 동독은 그 다음 회의를 주최하고 싶다고 희망을 털어 놓았다. 그때 누군가가 소리쳤다. 「베를린과 뮌헨에서 나누어 하면 어떤가?」 통일독일이려면 당연히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같은 분단국가 출신으로서 웃어넘길 수 만은 없었다.

이번 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말썽이 있었던 모양이다. 어느 동아시아 나라에서는 자비로 회의에 참석하겠다는데도 정부에서 여권을 내 주지 않았다고 한다. 물어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중국인 것 같다. 또 어느 동유럽 나라에서는 어떤 분과를 빼지 않으면 참석하지 않겠다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그 나라는 동독일 가능성이 높다.

그 전과는 달리 이번 회의는 전체가 과학과 정치라는 주제에 초점이 맞추어 졌다. 크게 11개 제목으로 나누고 그것들을 더 세분해 모두 120분과를 만들었다. 과학, 기술, 의학과 국가기관, 정부 사이의 역사적 관계; 과학기술과 정치혁명; 왕실, 아카데미,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에서의 과학의 몫;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치적 결정; 현대세계에서의 과학자, 기술자, 의사의 위치 등이 다루어졌다.

과학과 정치의 관계에서 독일은 각별한 관심을 끌게 되어 있다. 프로이센의 대학개혁은 과학의 전문직업화, 독일과학의 비약적인 발전의

▼ 동독, 소련학자들과 축배(우측이 필자)



원동력이었다. 1933년 이후 제3제국은 인종, 정치적 견해를 문제삼아 많은 과학자들을 내쫓았고 망명과학자들이 세계과학의 판도를 바꾸었다. 나치 치하의 과학에 대해서는 동서독에서 활발한 연구가 되고 있다. 이 두 분과에서 좋은 논문이 많이 나왔다. 그밖에도 과학기술과 스탈린주의, 라틴 아메리카의 과학, 국가, 권위주의, 과학과 인권, 과학과 식민제국주의 등이 재미있는 분과들이었다.

기념분과도 셋이나 있었다. 퍼스(1839-1914) 75주기, 라바지에의 「화학요론」(1789) 200주년, 버날의 「과학의 사회적 기능」(1939) 50주년 가운데 마지막 분과 「과학과 과학정책의 상호작용」은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사회에서의 과학의 몫을 마르크스주의적으로 분석한 버날의 책은 인간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과학을 합리적으로 응용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 책은 제1차 세계대전, 1930년대의 경제위기, 파시즘 대두를 배경으로 나왔는데 곧 2차대전이 발발해 그 효과가 흐려졌었다. 그러나 그것은 전후 여러 나라의 과학계획의 기초가 되었으며 과학사, 과학정책 연구에 큰 영향을 주었다.

서독의 과학사회학자 바인가르트의 사회로 진행된 이 고전의 재평가에는 버날의 측근이었던 결정학자 맥카이(영국)를 비롯해 크뢰버(동독), 윌러(체코슬로바키아), 새퍼(미국), 슈타이너(동독), 타이히(영국), 말레츠키(폴란드), 르게이(프랑스), 맥클라로드(오스트레일리아) 등이 참여해 대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곧 나올 「버날의 과학의 사회적 기능, 1939-1989」를 준비해 온 동독학자들은 광고를 뿌리며 열을 올렸다. 여기서의 긍정적 평가 이외에 버날이 과학주의와 낙관론을 펴 왔다는 비판의 소리도 나왔다.

닷새 동안 함부르크에서 회의를 끝낸 우리는 일요일 아침 전세열차로 뮌헨으로 떠났다. 꼬박 하루 걸리는 곳으로 자리를 옮긴다는 것은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었다. 미국대표단은 앞으로는 회의를 두 도시에 나누어 하는 일이 없도록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독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 함부르크와 뮌헨 사이에는 대립, 경쟁하는 미묘한 남북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베를린에서 온 어떤 학자는 자기가 어느 편도 아니라면서 함부르크 개최식을 북쪽 사람들이 독점하고 뮌헨의 독일박물관 마이어관장을 소개하지 않은 것은 큰 실수라고 했다. 뮌헨시장 초연에서 내가 임경순씨를 함부르크대학생이라고 소개하자 시장은 들은 체도 하지 않았다. 바이어른 사람들의 북부에 대한 감정을 알 만했다.

뮌헨에서 회의는 사흘 계속되었다. 함부르크에서는 포도주와 치즈가 나오더니 뮌헨에서는 생맥주와 간소시지(직역하면 간치즈)를 주었다. 유명한 자동차공장 BMW를 구경하고 성찬을 대접받기도 했다. 콩그레스 첼트룸이 거대한 독일박물관 안에 있어 볼 것은 너무나 많았다.

뮌헨회의의 첫날에는 종일 과학사교육분과의 발표가 있었다. 이 분과는 각국의 실태를 소개하고 서로 비교하도록 짜여진 것이었다. 동브르(프랑스), 부싱(동독), 흐론츠키(헝가리), 게르데스(모잠비크), 渡辺(일본), 李(중국), 안사리(인도), 이사노글루(터키), 포건(영국), 디넬(서독), 타이히만(서독), 바르바쇼프(소련)이 발표했고 나도 한국의 과학사교육의 현황을 반시간 동안 얘기했다. 논평은 폴타(체코슬로바키아)와 맥클라오드(오스트레일리아)가 했다. 각국의 과학사교육에는 공통점이 많으나 다른 점도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연구의 여지가 많음을 확인했다.

회의기간 두번 과학사교육위원회가 열렸다. 우리는 더 구체적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다음 회의 사이의 중간인 1991년에 별도의 과학사교육회의를 갖기로 합의했다. 유럽이나 동아시아나 설왕 설래하다가 중간지점인 모스크바에서 하자는 내 제안이 받아들여졌다. 회의에 온 소련 자연과학사연구소장이 선뜻 좋다고 해 모스크바회의는 확정되었다. 矢野(일본)가 사임한 위원장에는 당컨(영국)이 뽑혔다.

한태평양위원회도 분과발표와 위원회를 열었



▲ 뮌헨시장과 나란히(중음이 필자)

다. 캘리포니아, 하와이,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등 태평양 연안국가들이 모여 버클리회의 때 시작한 이 위원회는 이번에 정식기구로 인정받았고 하와이에서 별도 회의를 갖는 등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은 태평양에 접하지는 않지만 여기 참여해 왔다. 자본주의국과 사회주의국 학자들의 제한된 소규모 모임인 국제과학정책위원회에도 서면으로 가입신청을 해 놓았다.

IUHPS(국제과학사·과학철학연합) 과학사부의 총회가 두 도시에서 한번씩 열렸다. 대만, 멕시코, 노르웨이가 새로 가입승인을 받았다. 이탈리아 출신 갈루치회장 사회로 임원개선이 있었다. 전형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간사장 셰이(캐나다)가 회장에, 간사보 부싱(동독)이 제2부 회장에 당선되었다. 이사, 감사, 분과위원장 개선도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긴급발언권을 얻은 멘들손(미국)이 앞으로는 여성을 더 많이 뽑았으면 좋겠다고 역설했다. 이 얘기를 들은 메이슨(영국)이 한마디 했다. 「큰 나라끼리만 해 먹는다.」 한국이 임원에 끼지 못했다는 뜻이리라. 하기야 전혀 로비를 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한 결과다.

총회의 하일라이트는 차기 회의장소의 결정이다. 이번에는 멕시코와 스페인이 경합했다. 두 나라 대표들이 나와 이유를 설명하는 연설을 한 뒤 표결에 들어갔다. 한국은 멕시코시에

투표했는데 결과는 스페인의 압승이었다. 스페인은 60여명이 몰려와 관광책자까지 돌리더니 따 내고야 말았다. 갖 입회한 멕시코가 회의를 유치한다는 것은 역시 무리였다. 우리는 1993년 중세도시 사라고사에서 다시 만나기로 기약하고 이별의 잔을 나누었다.

8월9일 회의를 마치고 이튿날 하루 로튼부르크 관광을 즐긴 다음, 나는 오리엔트 익스프레스를 타고 부다페슈트로 떠났다. 2년전 갔던 곳이지만 그때 못간 시골을 보고 싶어서였다. 그렇게도 들어가기 어렵던 나라를 서울에서 비자 받아 놀러 가게 됐으니 참 세상은 많이도 변했다.

찾간에서 만난 멋진 부인은 한 주일전 오페라 공연계약차 서울에 다녀왔다고 한국 칭찬을 했다. 변호사, 영화감독 부부와 환담하는 동안 차는 부다페슈트에 닿았다. 마중나온 부인의 남편이 시내는 자동차경주 때문에 만원이라고 교외 셴트드레에 숙소를 잡아 주었다. 그는 외트비슈대학 사회학 교수로 영어저서가 두권이나 있었다.

두나(다뉴)강변의 절경을 하루 보고 부다페슈트로 옮겼다. 에딘버러회의 이래 친구가 된 바모슈의 안내로 기술박물관을 보았다. 15년전부터 준비를 해 왔는데 아직도 언제 개관할지 모른다고 했다. 벉락치기로 한두해 걸려 문을 여는 우리나라의 박물관과 비교가 되었다. 제물바이스박물관은 방마다 직원이 따라 다니며 영어 또는 독어로 열심히 설명을 해주었다. 우리는 언제나 그런 전문박물관을 갖게 될까?

헝가리사람들에게 한국은 부자나라, 기술선진국으로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그들은 한국의 고도기술을 배우기를 열망했다. 그런데 기술협력에는 공산권에 군사기술 유출을 금하는 미묘한 문제가 걸려 있다. 우리는 그런 염려가 전혀 없는 한국·헝가리과학사회의, 분류학 공동연구를 하기로 합의했다.

한국대사관을 찾아갔다. 한탁채대사는 자신에 차 있었다. 북한대사관은 규모를 반으로 줄였고 150명이나 되는 유학생들을 다 철수시켰다고

한다. 대사관이 들어 있는 포름 호텔에는 한국인들이 우글우글했다. 실업인, 체육인, 종교인들, 그리고 교포 이영숙씨를 만났다. 뒤늦게 김기협 교수가 도착했고 우연히 만난 李炳勳교수(전북대)도 합류해 셋이 한 방을 쓰게 되었다.

광복절 아침 국제동굴학회가 열리고 있는 카를 마루스대학에 가 보았다. 이병훈교수가 이사로 선출된 회의장에는 태극기가 걸려 있었다. 오후에 부다 힐튼호텔에 올라가니 커다란 태극기가 날리고 있었다. 大字의 유럽지사장회의가 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데브레첸대학에서는 외국어대 헝가리어과 학생들이 연수를 받고 있었다. 박물관 방명록을 보면 한국학생들이 다녀간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식당이 있어야겠다는 얘기가 나왔다.

발라톤호숫가 포뇨드에는 회의에 같이 참가했던 체코슬로바키아의 마르크바르트가 기다리고 있었다. 기차로 가 보니 친구 부인이 화학회사 직원들을 데리고 와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 친구는 마침 병이 나서 프라하로 떠나고 부인의 안내로 체코슬로바키아사람들과 함께 뱃놀이와 관광을 즐겼다. 친구 부인 이레나는 술을 들 때마다 「페레스트로이카를 위하여」하며 건배했다.

45도까지 올라간 무더위 속의 부다페슈트에서는 큰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다. 동독피난민들이 서독대사관을 점거했고 서독 외무차관이 달려왔던 것이다. 나는 친구에게 처음으로 1956년 인민봉기 때 얘기를 자세히 들었다. 헝가리는 무섭게 변하고 있었다. 도대체 동유럽 사회주의가 어디로 갈 것인가?

남부의 페이지를 다녀 와서 헝가리를 떠나기 전 국경도시 쇼프론에서 하루를 지냈다. 개방된 국경은 철조망이 없어져 어디인지 분명히 알기가 어려웠다. 부시가 기념으로 사 갔다는 철조망 토막을 나도 사고 싶었으나 어디서 파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대신 유명한 약술 유니콤과 평양산 인삼술, 인삼크림을 사 가지고 국경을 넘었다.

